

## 회 의 록

회의명		2025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					
일 시		2025. 4. 29.(화) 14:00 ~ 15:20					
장 소		대학본부 별관 1층 CNU Hall					
회의안건		[제1호] 대학평의원회 의장 호선 [제2호] 2025년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(안)					
회의결과		[제1호] ○○○ 의원 선출 [제2호] 보고 안건					
참 석 현 황	참석 대상자	22명	위임 내역		참석자		
	참석자	20명					
	불참자	2명	불참 내역				
주요 발언내용							
<div>■ (개회 선언 및 성원 보고) 재적위원 22명 중 위임 6명 포함 20명 참석.</div> <div>■ (전차회의록 검토 및 확인) 2025년 제1차 대학평의원회 심의 결과, 수정 없이 원안으로 확정.</div> <div>■ 의안 제1호</div> <div>○ 부의장(○○○): 제1호 대학평의원회 의장 호선 진행하겠습니다.</div> <div>○ 의원(○○○): ○○○ 의원 추천.</div> <div>○ 부의장(○○○): 추천 후보가 ○○○ 의원 한 명인 관계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. (투표 진행)</div> <div>○ 부의장(○○○): 투표 결과, 찬성 11표, 기권 3표로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○○○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함. 다음 안건부터는 의장이 진행하겠습니다.</div> <div>■ 의안 제2호</div> <div>○ 의장(○○○): 제2호 2025년도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(안)은 기획처의 요청에 따라 심의가 아닌 보고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.</div> <div>○ 기획처장(○○○): 회의 자료에 따라, 제2호 안건 보고 설명.</div> <div>○ 의장(○○○): 꼭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 지표에 담겨있는 것인지?</div>							

- 기획처장(○○○): 꼭 지켜야 하는 핵심지표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통합, 두 번째는 정원 2% 감축, 세 번째는 전공자율선택제 30%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함.
- 의장(○○○): 비현실적인 지표들이 있다고 생각함. 예를 들어 지역 정주율을 38%에서 50%로 올리겠다는 것은 졸업생들은 다 그 지역에 살아야 가능한 것임.
- 기획처장(○○○): 해당 수치들은 목표치임.
- 의장(○○○): JA 내·외부 1,000명은 무슨 의미인지?
- 기획처장(○○○): 내부 JA는 겸직·겸무 교원으로 공주대와 충남대 겸직하는 교원 500명과 교내에서 학과 간 겸무하는 교원을 500명을 말하고, 외부 JA는 출연연 등 1,000명을 말함.
- 의장(○○○): 융합 과정 이수율이 100%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다 융합수업을 들어야 하는지?
- 기획처장(○○○): 융합 과정은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이상의 융합교육을 말하며 기초적으로 3~4과목은 들어야 함.
- 의원(○○○): 학부 정원감축에 대해서 40년까지 목표를 제시하셨는데 글로벌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켜야 할 강제성이 있는지?
- 기획처장(○○○): 강제적인 것은 30년까지 2%임. 35~40년에는 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감안해서 각각 5%, 8%로 수치를 정한 것임.
- 의원(○○○): 글로벌 결과가 5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학과 통합논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? 학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해보임.
- 기획처장(○○○): 개인적인 소견으로 2일에 기획서를 제출하고, 20일의 여유가 있음. 지금까지 다양한 통합모델이 연구된 바 있는데 가능하면 학과 발전 계획 수립 전에 통합모델·지원금의 정도를 정하고 싶음. 통합모델을 정하고 학과별로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학과 발전 계획 수립을 한 후 공주대와 만나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 그렇게 하기 위한 작업을 6~7월 초까지 한다고 보시면 됨.
- 의원(○○○): 통합논의 관련하여 의무화되어있는 것들이 있는지, 전부 학과 자율로 맡기는 건지? 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는지?
- 기획처장(○○○): 학사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 기획서에 쓰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여유가 있음. 그러나 본 계획서에도 어느 정도 내용을 적어야 해서 7월 초까지는 학과 관련 논의 필요하다고 생각함.
- 의원(○○○): 핵심지표 중에 융합과정 이수율 100%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의무화를

점진적 추진하는 건지, 학생 의무가 다른 건 완화해주시는지 궁금함.

- 기획처장(○○○): 융합과정 이수율 100%는 점진적 목표로 의무가 생기는 것에 따른 완화 조치에 대해 논의해 보겠음.
- 의원(○○○): 유학생 3천명 늘린다는 것에 대하여 유학생은 한국 학생들보다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움.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명확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? 아니면 학생이 원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식인지? 무조건 받아줘야 이 숫자가 가능할 것 같음.
- 기획처장(○○○): 유학생 수는 우리 대학의 세계 지수와 관련이 있고, 2천 5백명 수치가 너무 낮다고 해서 3천 명으로 올린 것임.
- 의원(○○○): 유학생 유치를 양적으로만 생각하면 안되고 질적으로도 고려 필요, 결과적으로 교내학생과 교원입장에서 유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수업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함.
- 기획처장(○○○): 한국어 교육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, 2천 5백명 이상은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학령 인구 감소하는 추세, 각종 지수도 고려해야 할 때 힘들더라도 3천명 정도 제시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.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형식으로든 보완 프로그램 마련하여 진행해야 할 것 같음.
- 의장(○○○): 일방적 설명회 말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함.
- 기획처장(○○○): 설명회를 토론회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음.
- 의원(○○○): 예비 지정이 된 이후 본지정 기획서 제출까지의 동안에 구성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과 피해에 대해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계시는지, 여러 차례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학우들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,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공감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궁금함.
- 기획처장(○○○): 구성원 한 명에게까지 다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자 함. 찾아가는 설명회뿐만 아니라 학생 식당에 대자보라도 붙이는 등 접촉 횟수를 무조건 늘릴 수 있도록 상의해 보겠음.
- 의장(○○○): 이렇게 도식화돼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 질문이 생기고 각 단위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함. 가능하면 이런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어떤 것이 담기고 결정될 것인지 설명하면서 토론회에서 질문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. 다른 질문이 없으면 회의를 종료하겠음.

■ 폐회